

## 산업안전보건에 관심 있는 후보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정 영 숙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해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지금도 국민의 무관심 속에 후보선출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무려 100여명의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니 우리나라는 금방이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장밋빛 대선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너도 나도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세울 것은 뻔한 일이며, 서민을 위한 각종 주택정책 및 복지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지켜질거라 기대하지 않은지 오래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공약이 발표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라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보건 분야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관심이나 갖고 있었을까? 결코 그런 것 같지 않다. 산업보건 분야는 관심 밖에 있었으며, 대선공약에서도 늘 소외되어 왔거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선주자들은 산업보건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관심과 실천 가능한 공약을 발표할까?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재공화국이다. 2006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노동자의 수는 89,910명으로 그 중에 2,45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24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그야말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산재사망 만인율은 2.46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국가 경쟁력 순위로 산재사망률을 비교할 때 5-10배 높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가 지도자의 인식이다. 대통령이 노동자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중요함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는 없을 것이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경제발전을 제일의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발전은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노동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경제발전에 대한 각종 공약은 발표하면서 정작 경제발전을 이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공약은 외면하여 왔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되어 걸으로 드러난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며 물질적·경제적 풍요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로 또는 직업병자로 전락하는 불행을 초래하였다. 이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의한 인명경시풍조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규제들이 기업의 경영에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정부는 노동계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운 경제논리에 노동자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이러

한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정책 개발이 너무나 부족하다.

노동자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대선주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때 반드시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공약이 지키지 못할 허황된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정책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여 이를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산업안전보건 공약 내용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국의 산업안전 보건인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가 지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